

SK, 중국 타고 장기전략 “올인?”

10월31일부터 4일간 CEO 세미나 개최 ... 독립경영-시너지 추구도

SK그룹이 중국에서 최고경영자(CEO) 세미나를 개최하고 계열사별 미래 성장전략을 개발한다.

SK그룹은 10월31일 중국 항저우(杭州)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주요 관계사 사장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일정의 CEO 세미나를 시작했다.

<같이하는 성장, 함께하는 행복>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계열사별 독립경영과 관계사간 시너지를 추구하는 그룹 운영체제인 <따로 또 같이>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중국사업 추진전략을 비롯한 미래 성장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.

최태원 회장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“<따로 또 같이> 경영체제를 통해 대부분의 관계사가 경영실적 개선을 이루고 이해 관계자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의 발전기반을 구축했다”고 평가한 뒤 “독립경영의 기반강화와 함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성장엔진 구축에 역점을 둘 것”을 당부했다.

SK그룹은 사별 경영환경과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CEO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10월께 3-4일 일정으로 CEO세미나를 개최해왔다.

SK그룹은 2000년 싱가포르에서 사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<글로벌리제이션 전략>과 <Task2000>이라는 변화경영 추진을 선언하고 2001년에는 상하이에서 <중국기업 SK> 전략을 발표했으며, 2004년에는 브랜드와 기업문화를 공유하는 그룹 운영 시스템을 담은 <SKMS> 개정안을 확정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01>